

‘Poli’ Wiki:

Token Curated Registry를 활용한 정치인
정보 공유 플랫폼

I. 서론: 문제 제기

II. 해결방안

- 1) 서비스 프로세스
- 2) 비즈니스모델

III. 고객분석

IV. 기대효과

V.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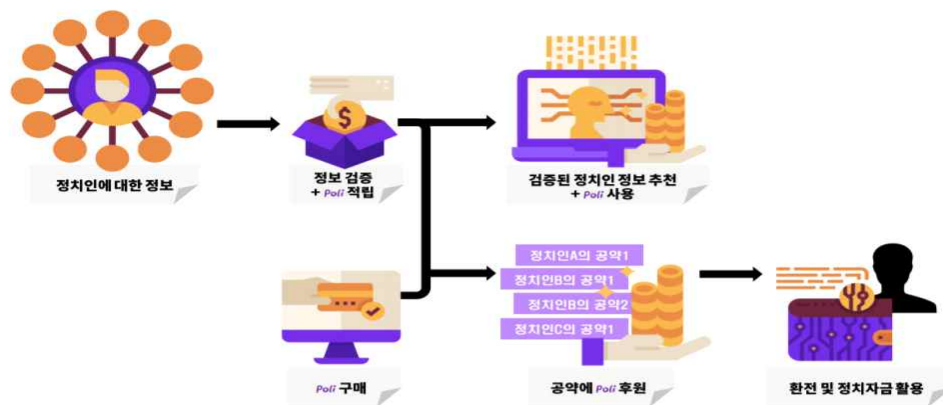
I. 문제 인식 및 정의

최근뿐만 아니라 꾸준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의 은닉 재산 공개나 인사청문회에서의 도덕성 등이 화제가 되며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낮춰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정부 기관 중 가장 신뢰도가 낮은 것은 국회가 되었고, 그 신뢰도 수준은 지나가던 모르는 사람보다 낮은 수준으로 측정됩니다. 하지만, 기존 언론과 우리 정치 행태는 의정 활동이나 생산적인 논쟁보다 정치인 개인의 여러 논란이나 정쟁 등에만 기존 미디어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인 개인 SNS나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지지자의 결집 장소로만 한정되고 정치인이 제공하는 정보만을 수동적으로 받을 뿐 자신이 알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아니라 자신을 중도라 생각하는 무당파 지지층이 늘어나고 투표율도 지속해서 상승하는 등 정치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정치 자체를 신뢰하지 못해 혐오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생기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정당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하는 정치나 미담 그 자체를 왜곡 없이 홍보할 수단은 부족하고 일반 대중에게는 정치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알릴 수 있는 경로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반복되어 정치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고 다양한 정보를 아카이빙(Archiving)하고 있지 않은 문제를 Token Curated Registry를 활용한 정치인 정보 공유 플랫폼 'Poli Wiki'로 해결하려 합니다.

II. 해결방안

1) 서비스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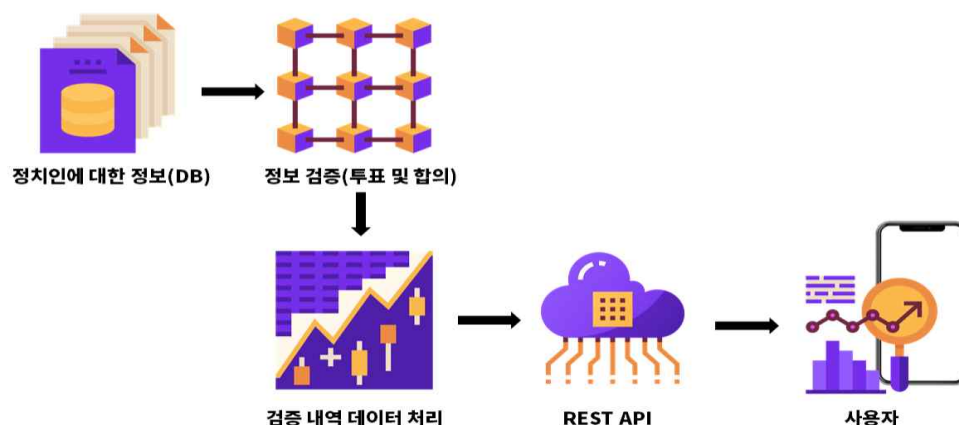


저희의 전체 서비스 프로세스는 해당 도식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입 시 토큰을 지급받고 정치인의 정보를 개인이 등록할 때 토큰을 보증금으로 내야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축하려 합니다. 어떠한 리스크 없이 정보를 등록할 경우 abusing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성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후 서비스 내 정보를 읽고 검증하면 저희의 토큰인 Poli를 적립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획득한 Poli는 검증된 정보를 추천하고자 할 때 사용하게 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앞선 경우처럼 abusing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Poli를 사용하면서 추천을 하는데 마구잡이로 추천할 수가 없고 정말 가치 있고 공유하고 싶은 정보에 추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얻은 Poli의 또 다른 사용처는 정치인이 제시한 공약에 Poli를 후원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통해 인지한 정보를 토대로 자신이 선호하는 공약에 후원하게 해 정치인이라는 가림막을 제거하고 공약을 통한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이외에도 정보를 얻지 않고 후원만 하고 싶은 사람이나 정당이 광고할 기회를 주는 대신 토큰을 거래소를 통해 별도로 Poli를 구매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후원 받은 정치인은 정치 자금을 환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이 위법이 되지 않도록 계정별 최대 상한을 설정할 것입니다.

2) 시스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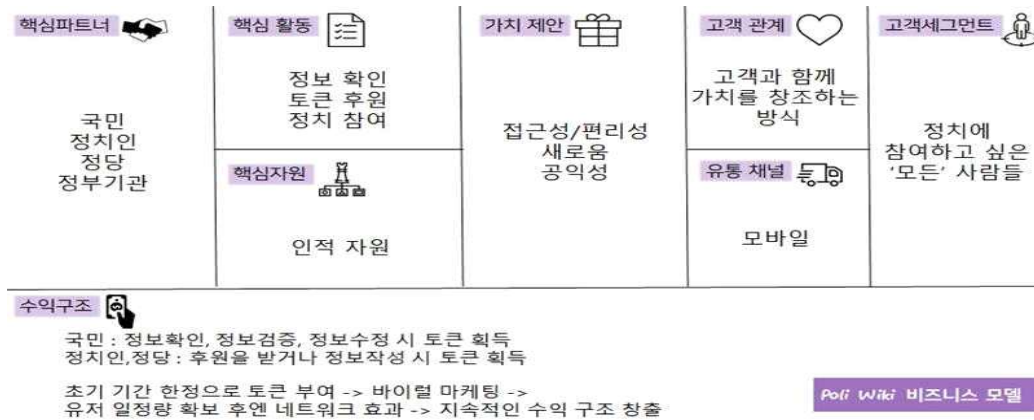


정치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등록될 때마다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됩니다. 이후 POLI Wiki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의해 정보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는 타인의 정보를 검증할 때마다 자체 암호화폐 Poli를 받을 수 있고 이 정보를 자신이 가진 Poli 한도 내에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각적으로 Poli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3일 정도의 여유시간을 두어 정보 수정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하고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도용해 벌이는 조작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개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정보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일정 Poli를 제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검증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는 일정 Poli를 보증금으로 내고 수정 요청을 하고 일정 수 이상의 공통된 요청이 있을 때 수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수정된 이력을 모두 블록체인에 태우는 것은 데이터 부피가 너무 커질 것이기에 수정 이력의 해시값을 블록체인에 기록할 것입니다.

Rest API는 웹, 앱 서비스에서 회원 정보나 로그인 데이터에 필요한 부분들을 REST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요청하면 Post, Get, Put, Delete 4가지의 Method로 전달할 것이며 사용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포인트 적립, 정보의 사실 여부 검증, 정치인 후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캔버스를 통해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는 투명성과 접근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중의 능동적인 정보 검증과 생산 및 공약에 대한 후원을 통해서 첫째, 기존 미디어와 차별화된 투명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 언론에서 주로 다루어지던 자극적인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만 했기에 일반 대중에게 기존 언론은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지적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비즈니스를 통해서 누구나 직접 알고 있는 정보를 생산하고 확인 가능하기에 정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별 기사로 파편화되어있던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한데 모바일 채널에 모아 다각도로 해당 정치인에 대해 조사할 수 있기에 정보의 접근성을 높인 측면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 저희 서비스를 통해 기존 정치인 후원 방식의 맹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기존 후원 방식은 정치인의 후원계좌에 후원하기에 어떤 정치인의 정책을 지지하는지 알 방법이 없었고, 그 자금을 추적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적 논쟁은 정치인의 공약이나 의정활동이 아니라 정치인 그 자체에 대한 논쟁이 주를 이어 왔습니다. 저희가 발행할 토큰의 사용처를 자신이 원하는 정치인의 공약에 후원할 수 있도록 설계하려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정치인은 자신의 어떤 공약을 지지받는지 알 수 있고,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 위주로 조사했던 기존 여론조사의 틀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후원자는 정당, 사람을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공약에 지지를 표해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개별 정치인, 정당, 정부 기관 등에서도 저희가 만든 정보를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플랫폼에 활발하게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당이나 기관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런 광고는 개인 정치인이 하면 과열 경쟁을 불러올 수 있어 정당 차원과 중립적인 공공 기관의 광고를 받을 것입니다. 정당과 정부 기관에서 토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기관 참여자도 토큰의 수요와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초창기에 수익 창출을 위해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Critical mass를 모으는 방안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선택할 것입니다. 서비스 초창기에 가입하는 사람들에 한해 토큰을 2배로 주고 이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할 것입니다.

Ⅲ. 고객분석: 정치에 관심 있는 우리나라 국민

“대한민국 정치는 위선적이다.” 이것은 서울신문이 2020년 1월에 조사한 기성 정치와 정당에 대한 인식 결과란 기사의 헤드라인이자 최다 득표 결과였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참여자 중 59%의 사람들은 ‘정치’라는 키워드를 들었을 때 “위선적이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 ‘부패하다’ 45.4%, ‘실망스럽다’ 43.4%, ‘늪었다’ 25.9%, ‘비이성적이다’ 21.5% 등 회의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희망적이다’ 5.9%, ‘정의롭다’ 3.9%, ‘합리적이다’ 2.6% 등 긍정적 이미지를 떠올린 응답자는 소수에 그쳤습니다. 또 경향신문·한국리서치의 불공정 설문에서 가장 불공정한 분야를 묻은 결과, ‘정치권’이 3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 무당파 지지층, 중도 지지층이 늘어나며 현재 양당으로 재편되어있는 현 정치권 모두에 불만을 품는 층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런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투표율의 하락으로도 이어진 적이 있었으나 최근 18대 대선 이후로 지속해서 투표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듯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참여의 부족으로 직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주요 타겟은 정치에 관심 있는 무당파 지지층을 포괄하는 국민입니다. 후원도 정치인이 아닌 공약을 대상으로 후원을 하기에 무당파 지지층을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정보 검증과 추천도 더욱 객관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IV. 결론: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첫째, 한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기저한 투명성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건강한 정치참여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하기에 집단지성을 활용해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감소시킬 것입니다.

둘째, 기존 여론 조사 방식의 전환을 함께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정보 공유를 통해 얻은 Poli를 활용해 공약을 후원함으로써 정치인, 전화 통화 중심의 여론조사를 탈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와 같이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가능합니다. 저희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 있는 국민들이 어떤 정보를 보고 싶어 하는지, 어떤 공약을 후원하는지 등을 알아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넷째, 기존의 인사청문회나 투표 전에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 전후, 당선 후에도 지속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도덕성 검증을 지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에 대한 신뢰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V. 참조

- 황형준, 조동주. (2019). '조국 사태' 이후 與 떠난 중도층, 지지정당 못찾아 '무당파'로. 동아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916/97416249/1>
- 김규원. (2020). 국민 신뢰도 쪼개 기관은 '국회'...이념 성향 '보수' 늘고 '진보' 줄어.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928990.html#csidx7167a841d65be7bae7f62d9d1bbe0bf
- 김나현. (2012). 왜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할까?. 서울대학신문. Retrieved from: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24>
- 박흥두. (2020). [창간기획-여론조사]불공정 분야, 정치·법조·언론 순...10명 중 7명, 법 집행 불신.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0060600065
- 남정호. (2019). [극한 대립의 정치] 갈수록 심화되는 정치·이념 양극화...무엇이 문제인가. 투데이신문.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960>
- 조형록. (2016). 20대총선, 대학생들이 당선자에게 바라는 것은?거제대 학생들이 생각하는 지역국회의원의 할 일. 한남일보. Retrieved from: <http://www.han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014>
- 안병옥. (2016). [특집] 제20대 국회에 바라는 다섯가지. 국회뉴스ON. Retrieved from: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6/06/28/c3a166a3-39c2-4aa8-a48b-aed0fcd94b99.html>
- 시민건강연구소.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것. Retrieved from: <http://health.re.kr/?p=5960>
- 이정수. (2020). 대한민국 정치는 '위선적'... 민주당 '실망'·한국당 '부패'. 서울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06005010>
- 유효송, 김예나.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21대 국회 '리셋' 해야". the300. Retrieved from: <https://the300.mt.co.kr/newsView.html?no=2020052117327663460>